

코로나 블루 도서관서 치유하세요

12~18일 도서관 주간 맞아

무등·산수·일곡·푸른길 도서관 등
강연·전시·체험행사 풍성

도서관 주간은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 이용과 독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64년부터 매년 4월에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당신을 위로하는 작은 힘표 하나, 도서관"을 주제로 강연, 전시, 체험, 도서 두배 대출 등 다양한 행사가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먼저, 광주시립도서관인 사직도서관에서는 '집들이 집순이를 위한 도서' 전시가 열린다. 집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한 인테리어, 집 정리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다. 초등학생(1-3년)을 대상으로 다목적실에서 '상상력 POP팝업북 만들기', 성인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식물 스칸디아모스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인 '포근포근 스칸디아모스'도 펼쳐진다. (062-613-7776)

무등도서관에서는 '독서명언 포스터 & 원화전시'가 진행된다. 그림책 원화와 독서명언 포스터를 운영 후 SNS 공유 시 독서 명언 포스터를 증정한다. 또한 이서우 작가의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림책 속 꼬마팽이를 만들어보는 '이서우 작가와의 만남 (비대면)'도 예정돼 있다. 도서 대출 정지를 해제해 대출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도서연체자 탈출'도 이번 기간에 펼쳐진다. (062-613-7727)

산수도서관에서는 다문화·영어 팝업북을 볼 수 있는 '팝업북 전시'가 예정돼 있다. 또한 '미술특강 인상주의에서 광주 비엔날레까지 (비대면)'를 주제로 조사라 강사가 강연을 하며, 대출 권수를 5권에서 10배로 확대하는 '도서 두배 대출'도 예정돼 있다. (062-613-7812)

광산구립도서관인 장덕도서관에서는 '나무가 자라는 빌딩'의 저자 윤감미 작가와의 만남이 15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 '햇빛이 머무르는 순간: 선캔저 만들기'도 비대면으로 열린다. (문의 062-960-3992)

첨단도서관에서도 강연, 전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14일에는 광주일보 2019 신춘문예 당선자인 강대선 시인의 '작가의 글쓰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창작 과정의 에피소드, 문학에서 언어란 무엇인지 등 실제 창작 위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17일에는 '협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에게'의 저자 송지혜 변



2019년 산수도서관이 도서관주간에 진행한 그림책이야기 공연.

호사가 '여성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한다. 아울러 DMZ 공원을 모티브로 한 '기이한 DMZ 생태공원 원화 아트프린팅' 전시도 도서관 주간에 진행된다. (062-960-8297)

이야기꽃도서관에서는 15일 오현경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봄에 만난 '민들레는 민들레''를 주제로 강연이 열리고, 17일에는 최향량 그림책 작가가 '나도 숲 속 재봉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 또한 도서관이 보관중인 1258점의 DVD를 대출하는 '특별 대출 우리집 DVD영화관'을 진행한다. (062-960-6812)

북구 운암도서관에서도 12일 '나만의 독서 다이어리 만들기', 13일 '최윤아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똑딱똑딱 마이북 만들기'는 접지와 재단, 제본 등 글쓰기 과정을 거쳐 나만의 책을 완성해보는 체험을 갖는다. 아울러 건강을 주제로 한 도서 전시인 '튼튼해지는 몸'전이 열리며 장래희망을 주제로 한 도서를 만날 수 있는 '나는 커서 로봇이 될 거야'전도 진행된다. (062-410-6960)

일곡도서관은 동화작가 꿈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김리리 작가와의 만남' (16일), 그림책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심선민 작가의 '0-7세 그림책육아의 모든 것-심선민 작가 북스타트 부모교육' (17일)이 각각 온라인

으로 진행된다. (062-410-6903)
양산도서관도 전시, 작가와의 만남, 팝업북 만들기가 마련돼 있다. 오는 23일까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단편소설, 에세이를 전시하는 '봄 책빛꽃밭'이 진행된다. 또한 15일에는 페그링책을 활용한 팝업북 만들기인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17일에는 "유령잡는 안경" 김진희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062-410-8242)

서구 공공도서관은 서구문화센터에서 '도서관 속 에코힐링', '도서관 속 향기 산책', '원화 전시'가 열리며 17일에는 최미나 작가가 '나를 알아보는 책'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062-654-4306)

남구 푸른길도서관도 강의와 체험 위주로 도서관 주간을 꾸린다. 14일과 18일에는 각각 이선숙 작가의 '책 속에 심는 꽃', 18일 범은경의 '알기 쉬운 아기 잠'이 열린다. 전자는 책을 읽고 반려식물 심기 등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수면교육을 통해 될 지치면서 아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062-607-2532)

한편 각 도서관 프로그램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지크바움, 자녀와 함께 클래식 여행

5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나주 안성현음악홀·백민관

코로나 19로 위축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즐거운 음악여행이 펼쳐진다.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이 '2021 자녀와 함께하는 클래식 아카데미'를 오는 10일부터 5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나주 안성현음악홀(3회)과 백민관(1회)에서 진행한다.

이번 연주회는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첫 번째 연주회(10일)는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비발디를 만난 시간으로 꾸며진다. '사계' 중 '봄'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한다. 이어 독일 작곡가 바흐의 '인벤션 1번 C장조', 'G선상의 아리아',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17일에는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빈



이주혜 이준성

에서 만나고 두 작곡가의 숨은 이야기와 음악을 연주와 영상으로 함께 한다.

남한주의 시대 프랑스를 여행하는 시간(24일)에서는 쇼팽의 '녹턴', 리스트의 '헝가리랩소디' 등을 들려준다.

5월1일에는 올해 탄생 100주년과 서거 100주기를 맞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와 생상스의 곡을 선사한다.

곡에 대한 해설과 연주는 피아니스트 김경아(광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바이올린 이준성, 클라리넷 정진용, 플루트 이주혜, 첼로 박효은, 피아노 김명미가 함께 한다. 전석 2만원. 문의 010-4621-9268.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문화재단, 재단소식 홍보 통신원 6명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은 제 12기 통신원 6명 내외를 모집한다.

통신원은 문화재단 소식과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현장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시 거주 청년으로 문화예술 전공자·활동가 및 취재 경력자·SNS 활동 경력자는 우대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월 1회 이상 문화예술교육 현장 취재 및 인터뷰 등을 담은 글과 사진을 작성해야 한다. 원고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뉴스레터 '울림'에 수록된다.

통신원 우수기사는 올해 말 발간하는 문화예술교육 뉴스레터 자료집 '모듬'에도 수록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통신원에게는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행사의 무료 관람 기회와 활동비(원고료 포함)도 지급된다. 접수는 7일부터 9일까지 이메일 접수(gjarte@hanmail.net)하면 된다. 문의 062-670-5771/57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예술여행 상품 개발 팸투어' 진행

'나만의 맞춤형 여행코스' 등
비엔날레 행사 기간 10회 운영

광주관광재단(대표이사 남성숙)은 '2021 비엔날레 여행의 해'를 맞아 다양한 예술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특화 예술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예술여행 상품개발 팸투어'를 진행한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진행되는 4월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팸투어는 지역 여행업계와 상생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예술여행도시 광주'

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와 전남의 관광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남도관광센터에서 '나만의 맞춤형 여행코스'를 기획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19800518 전시관, 전일마루 등을 둘러본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선정 '숨은 관광지'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이자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미디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미디어아트 작품 '캔버스245', '피에라 상징재단'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제 13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또, 예술인과 상인, 주민이 만드는 골목 미술제 '양림 골목비엔날레'가 열린 양림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미술관과 펍킨마을, 공예특화거리 등을 둘러보며, 오월어머니집에서 광주 7미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진행한다.

팸투어 마지막 일정은 광주 대표 공연인 국악상설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밖에 광주의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소개, 연계 관광지, 주변 먹거리, 주차정보까지 세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여행코스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문의 062-611-365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0일 이병주문학관

'지리산'의 작가 이병주(사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호남 학술세미나가 10일 이병주문학관(경남 하동군 북치년)에서 열린다.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는 문학'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이병주기념사업회가 주최하며 전남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가 주관한다.

김주성 작가의 사회로 시작되는 세미나는 10일 오후 개회식에 이어 이달균 경남문인협회장, 김용국 전남문인협회장, 탁인석 광주문인협회장 인사에 이어 '한



국 대중문학의 정점에 이른 이병주 소설'이라는 주제로 김중회 문학평론(전 경희대 교수)이 강연이 펼쳐진다.

이병주 작가는 1965년 '세대'에 준평 '소설-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으며 '관부 연산', '지리산', '산하', '바람과 구름과 비' 등 한국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을 남겼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